



■ 구단 사령탑 진로 어떻게 되나?

대부분 양호 판정 소폭 물갈이 예상

프로축구 2008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즌 종료 후 대폭의 사령탑 물갈이는 없을 전망이다. 삼성하우젠 컵대회 우승 행방이 수원 삼성-전남 드래곤즈 간 결승 대결로 결정됐고 22경기를 마친 정규리그도 6강 플레이오프 티켓 주인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태. 14개 구단 사령탑 거취가 팀 순위 못지않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정해성 전 감독이 사임하고 경남 FC 사령탑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전남 지휘봉을 잡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올 시즌 종료 후 연쇄 이동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알뜰 제주 감독과 변병주 대구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은 반반이다. 브라질 출신의 알뜰 감독은 화려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제주를 새로운 팀으로 변모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규리그 6강 진입 여부가 재계약 여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병주 대구 감독도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렸다는 호평 속에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으나 시즌이 끝나야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감독들은 내년이 보장돼 있어 남은 시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이어간다.

정규리그 1위를 이끄는 김학범(48) 성남 감독과 세븐 귀네슈(56) FC서울 감독, 세르지오 파리아스(41) 포항 감독, 김호(64) 대전 감독, 박항서(49) 전남 감독, 최강희(49) 전북 감독, 조광래(54) 경남 감독, 황선홍(40) 부산 감독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계약 끝나는 감독 중
차범근·김정남 '잔류 확실'
알뜰·변병주 '가능성 쉰수'

14개 구단 감독 대부분이 지난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데다 올해 연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령탑들도 팀 성적이나 내년에 계약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연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령탑은 수원의 차범근(55), 울산의 김정남(65), 제주의 알뜰 베르날데스(55), 대구 FC의 변병주(47) 감독 등 4명.

2004년 수원을 맡은 차범근 감독은 작년 2년 재계약을 했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수원이 컵대회 결승까지 올랐고 성남에 이은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해 차 감독이 수원을 계속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8월부터 울산 현대를 이끌고 있는 김정남 울산 감독도 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은 매년 김정남 감독과 재계약해왔고 김 감독도 2005년 정규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매 시즌 우승컵으로 화답했다. 울산은 이번 시즌도 정규리그 4위로 플레이오프 안경에 들어 있다.

정규리그 1위를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 사령탑인 귀네슈, 파리아스 감독도 6강 진출을 장담하고 있다. 김호, 박항서, 최강희, 조광래 감독도 성적이 썩 좋지 않지만 '경질론'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낮다.

황선홍 감독도 초보 사령탑에도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발탁된 정성훈과 '반지의 제왕' 안정환을 앞세워 상위 팀의 발목을 잡는 등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장외형(49) 인천 감독은 최근 팀이 성적 부진에 빠져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나 구단 고위층의 두터운 신임을 잃지 않았고 신생 구단인 강원도민축구단(강원FC) 사령탑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이강조(54) 광주 상무 감독은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면 상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연남뉴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펼쳐진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3차전 셀틱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36분 호날두(왼쪽) 대신 교체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2연승 조 선두... 2연패 향해 순항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셀틱(스코틀랜드)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연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18일 비아레알(스페인)과 1차전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뒤 1일 올보르BK(덴마크)와 원정에서 3-0 완승으로 첫 승리를 기록한 맨유는 2연승으로 2승1무 승점 7을 기록, E조 선두를 굳게 지키며 대회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박지성은 3-0으로 앞선 후반 36분 호날두 대신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출전 시간이 10분 정도 짧았던 데다 팀이 크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은 여전했다.

또 박지성과 셀틱에서 뛰는 나카무라 슌스케의 맞대결인 '작은 한일전'도 성사되지 못했다. 나카무라는 이날 선발로 출전했지만 박지성이 투입되기 전인 후반 16분 교체아웃됐다.

같은 E조의 비아레알(스페인)은 여섯 골을 자랑하는 골 퍼레이드를 펼친 끝에 3골을 넣은 올보르 BK(덴마크)를 6-3으로 물리쳤다.

김동진(26·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은 H조 3차전 보리소프(벨기에)와 홈경기 출

셀틱에 3-0 완승... 박지성 후반 10분간 출전

전을 기대했지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이드브카트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제니트는 선제골을 내주고도 후반 35분 파타호 테케의 동점골에 힘입어 1-1로 비겨 1무2패가 됐다.

같은 H조의 이탈리아 세리에A 강호 유벤투스(이탈리아)는 전반 5분에 터진 델 피에로의 선제골과 올리베이라 아미우리의 추가골을 앞세워 튀르키예의 동점골을 터뜨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를 2-1로 제압했다.

이밖에도 프리미어리그 '빅4' 아스널은 G조 3차전 원정경기에서 페네르바체(터키)에 5-2 대승을 낚았고 바이에른 뮌헨(독일)도 F조 상대 피오렌티나(이탈리아)를 3-0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프로 레슬러 이왕표 K-1 밤샘과 맞대결

내달 12일 서울시
경기 방식은 미정



이왕표

'박치기왕' 김일의 후계자 이왕표가 스승을 추모하는 프로레슬링 국제대회에서 격투기 K-1 스타 출신인 밤샘(미국)과 한 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레슬링연맹은 22일 "밤샘이 11월 1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제2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포레버히어로(Forever Hero) 대회에서 이왕표 대결 상대로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왕표 측은 밤샘과 격투기 톨로 대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레버히어로는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하다 2006년 11월 타계한 김일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 이번이 세 번째다.

프로레슬링연맹은 김일 씨 추모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유명 프로레슬러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2006년 11월 첫 대회에서는 김일 씨와 생전에 맞수이자 친구였던 '인간 산맥' 알뜰라 부처가 참가했고 작년 10월 두 번째 대회 때는 스타 프로레슬러 타지리(일본)와 김맨(영국)이 출전했다. /연합뉴스



23일(목)

- ▲200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필라델피아 : 탬파베이)(08 : 50·XSPORTS)
- ▲삼성증권배 웰린터 테니스 이형택 경기(11 : 50·SBS스포츠)
- ▲2008 KB국민은행 Star Tour 4차대회 1R(13 : 00·KBS N SPORTS·XSPORTS)
- ▲2008 영동장사씨름대회(14 : 10·KBS 1)
- ▲08/09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 : 우리은행)(15 : 50·SBS스포츠)
- ▲2008 일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17 : 50·SBS스포츠)

24일(금)

- ▲2008 PGA 프라이스 닷컴 오픈 1R(05 : 00·SBS스포츠·SBS골프)
- ▲200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2차전(필라델피아 : 탬파베이)(08 : 50·XSPORTS)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 062)385-9994 H.P.011-622-6650

입대 (신축건물)

- 1층: LG전자 판매점(11월준공 오픈)
- 2층: 100평 (권장) 의원, 학원 등
- 3층: 140평

입지장점
1. 금호지구 - 풍림지구 - 순천도로 교차점
2. 대로변, 우수 한 노출성
3. 금호마세, 풍림원리, 풍림지구 접근성 탁월
4. 광주 최고수준 교통망
5. 수려한 건물 외관
6. 합리적인 입차 가격
"상가는 입자가 핵(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관리실용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획 수완지구 건물매매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별당 470만)
200평 22억(별당 1100만)
수완지구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약안도인택지
생태대역용지
신창백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여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지 1200평 1800평
복구부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지연녹지 : 3800평-대형지전입가 6차선지
생산지 : 2800평-평등과단입근 특가상당

우량임야
(안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당양 25만평 정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별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광장
하남광안 800평

건물매매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 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영)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감평가	최저가
분당동	무도코 33평	1억1천5백	8천
홍성동	501/14	46천	1억7천
진월동	중동 33평	935백	6천650
대곡동	세한 24평	485백	3천220
안동	신원 46	1억2천	1억1천
도산동	호반 24	585백	3천710
문흥동	신원 33	6천2천	4천340
주월동	원대 31	985백	6천510
월계동	권영 36	1억1천	7천700
금호동	리안 32	8천5백	6천220

▶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쌍촌동	63/148	4억2천5백	2억5천5백
중앙동	61/147	3억920	2억7천5백
송정동	100/190	4억4천750	3억1천5백
계림동	65/119	3억8천	2억1천5백
두암동	56/104	2억4천5백	1억9천5백
유촌동	60/133	1억4천5백	1억7천5백
송정동	58/196	1억3천7백	1억2천5백
주월동	47/63	1억3천7백	5천5백
두암동	62/171	5억3천	2억9천
중흥동	71/162	3억1천5백	1억7천5백
월계동	55평	2억2천	9천5백
화정동	금호3동	8천5백	3천5백
동림동	삼7동	5천5백	2천5백
상 오치동	상7동	2천	1천1백
가계림동	40평	4억6천5백	2억5천5백
중앙동	15평	6천3백	3천5백
송정동	10평	4천	1천7백
중앙동	11평	4천5백	2천
구림동	20평	9천5백	5천3백
금호동	15평	7천	3천1백

▶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원동	66/30	1억4천2백	7천9백
중흥동	48/52	1억1천5백	8천5백
소촌동	57/55	8천5백	4천9백
문암동	41/58	1억4천5백	1억5백
오치동	43/50	1억3천4백	9천84
두암동	39/41	9천5백	4천73
중흥동	34/17	6천160	2천780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용나무 레스토랑
추천임종: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치킨프랜차이즈 최적합
매매가: 5억7천만원(용2억7천만원포함), 현금매수약3억

BEST 상가주택(원룸건물)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518공원힐스테이트아파트구도로변 대 196㎡, 건 430㎡ 매매가 5억
- ② 금호지구 진흥대단지 아파트입구 도로변 대 363㎡, 건 660㎡ 매매가 7억5천만
- ③ 유촌버들마을 뒷밭부근 대 181㎡, 건 271㎡ 매매가 5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주세요.. (그외 물건다량보유)

추천 상무지구 최고오장상권 1층상가(분양상가) 건 95㎡ 매매가 7억

사원모집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실분 모십니다. 상가임대(점포매매)전문: 남4명